

# 제주 해역 문화자원 활용방안

송 재 호 \*

〈차 례〉

- I. 제주 해역 문화자원 입지 조건
- II. 제주 해역 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을 위한 담론
- III. 제주 해역 문화자원 활용 방안
- IV. 마무리

## I. 제주 해역 문화자원 입지 조건

### 1. 자연지리적 환경 특성

문화의 생성과 변동에 있어 기후, 풍토와 같은 자연환경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제주도가 처한 지리적 환경은 제주도 문화의 한 배경과 기본요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산활동의 결과 생성된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제주도를 본도로 하여 비양도·우도·추자도 등 8개의 유인도 및 55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 부속도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등 4개의 유인도와 42개의 무인도로 구성된 추자군도가 제주로 편입된 것은 1914년이다. 그리고 추자군도는 조선시대 영암군·완도군 등에 편입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 제주문화와는 다른 전라문화권에 매우 가깝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 제주문화권이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추자군도를 제외한 제주도 및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sup>1)</sup>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1) 김동진,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p.8.

제주도의 형상은 북동동~남서서 방향으로 가로놓인 타원형으로 동서길이는 73km, 남북길이는 31km이다. 면적은 1,846km<sup>2</sup>로서 한국 전체면적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선 길이는 253km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는 제주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해남반도의 해남곶이 최단 지점이 되며 서울, 부산 목포로부터는 각각 483km, 392km, 140km 떨어져 있고, 동쪽으로 일본 후쿠오카와는 352km, 서쪽으로 중국 상하이와는 528km, 남동쪽에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섬과는 796km 떨어져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위치가 한반도, 일본열도, 중국대륙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속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이 세 지역과 문물을 교류하는 데에 유리했음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아시아대륙의 동쪽에 위치하므로 몬순(monsoon)의 영향이 큰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양성 기후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섬의 중앙부에 위치한 해발고도 1,950m의 한라산과 인근 해역을 흐르는 해류가 중요한 기후인자로 작용하여 제주도만의 독특한 기후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 2. 역사적 특성

제주가 해양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사실은 그 역사에 하나의 기본상수로 작용해 왔다. 천년의 스펙트럼으로 보면 영광과 굴절의 궤적으로 나타난다.

수산업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해상루트가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 교역이 활발하던 시대에 해상의 교통요충에 자리한 제주도는 번영을 구가했다. 반면에 농업문명이 정착되고 인구의 대다수가 육지에서 활동해온 시대에는 번방으로 밀려나 있었다.

제주의 역사를 크게 천년의 스펙트럼으로 볼 때, 전자는 독립국으로서의 탐라국 시대에 해당하고 후자는 탐라국의 해체 이후 중앙왕족 국가에 속한 하나의 지방으로 편입된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탐라국은 대륙의 강대한 국가들과 위상을 같이 했을 만큼 번영을 구가했다. 당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태산 봉선의식에서 일본보다 앞서 참례하였고, 삼국유사에는 신라를 위협하는 9개 국가(일본, 중화, 오월, 탐라, 백제, 말갈, 거란, 예맥) 중 4번째로 기록되었으며, 고려사에는 외국 사신 중에 탐라국 사신을 우대했다는 기록도 등장한다. 그러다가 중국문명이 동아시아의 주된 흐름으로 정착되고 육상

교통이 산업과 행정의 일차적 통로가 되면서 해양왕국 탐라는 고려와 조선에 복속되고 점차 주변부 변방, 격절과 고립의 나락으로 떨어져 갔던 것이다.

고려시대 몽골의 지배하에 들어갔던 제주는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던 몽골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몽골은 제주를 해양진출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일본정벌을 준비하였다. 선박의 제작, 군마의 양성, 법화사의 중창, 궁궐건설 시도 등 제주에 대한 몽골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조선왕조는 고려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제주섬이 중앙의 입장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되어졌다. 제주도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오는 절해의 유배지로 인식되어 갔다. 17세기 인조 때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이 19세기 2백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는 제주인들에게는 더욱 폐쇄적 상황이 강요되었다.

20세기 제주역사는 '이재수란'으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문화적 침투와 일제강점, 해방공간에서 찾아온 미·소 냉전체제의 희생물인 4·3이 발생하는 등 외부의 인간·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저항하기도 하고 순응하기도 한 과정이었다.

### 3. 제주문화의 특성

자연은 제주인들에게 불리했다. 돌이 많은 제주의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돌담을 쌓아 토지 소유의 경계를 명확히 했으며, 이는 바람과 우마에 의해 입던 농작물의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띠를 이용한 주거의 형태, 목화의 생산이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연중 입을 수 있는 갈옷, 주변의 흔한 해초류를 이용한 음식문화, 봉천수를 이용한 식수의 해결 등은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의 지리적 혹은 자연적 환경을 구분하고 고려와 조선조를 거치면서 변방으로서 핍박을 받으면서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隔絶)의 공간이었고, 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변방의 시기 1천년동안 제주인들은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신문화를 구축하였다.

'수놓음 정신'으로 대표되는 공동체 정신, '조냥정신'으로 상징되는 절약정신이 그것이다.<sup>2)</sup> 이러한 정신은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공동체

2) 송재호, 『제주관광의 이해』, 도서출판 각, 2002. p.99.

정신은 전근대의 한국 농업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요소지만, 제주의 경우는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이러한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탐라국이 소멸된 이후, 중앙집권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라는 양상으로 더욱 강화되어나간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의 경우 산촌은 반농반목, 해촌은 반농반어의 이중적인 생계수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목축과 어업은 마을 단위의 공동목장과 공동어장에서 행해졌다. 따라서 도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혈연적 유대보다는 마을을 중심으로 집결되었다. 재앙에 대비한 다양한 계의 조직, 마을제나 공동오락, 당 신앙과 같은 무속신앙을 통한 공동체성의 강화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sup>3)</sup>

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화는 대체로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 가공하여 얻어낸 정신적 산물과 생활양식의 총체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제주문화를 이야기할 때 제주도가 한반도와는 다른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주만의 자연지리적·역사적 특성에 근거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제주 해역 문화자원의 관광적 활용을 위한 담론

### 1) 문화관광의 의의

관광이란 말은 필경 '본다'는 데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광도 그저 '본다'는 것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는 듯하다. 산천을 보고, 고적을 둘러보고, 사찰을 보고, 유물을 보고, 그저 보는 것 일변도다.

그래서 과거를 둘러보는 관광대신에 오늘 그것들을 다시 만나는 관광이 관광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문화관광'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역사적 문화관광이란 과거를 오늘로 불러오는 관광을 뜻한다. 고조선 때 혹은 조선조 때의 역사적 사실로 덩그마니 놓아 둔 채로 지나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몰밀 듯이 밀려오는 시간체험의 관광을 말한다.

3) 김동진, 앞의 논문, p. 12.

체험은 바로 관광의 중요한 속성이다. 이 체험의 본질은 대상에 강하게 몰입된 심리상태인 고도의 의식적 체험이므로 즉시체험(Immediate Experience)의 성격을 띤다. 또한 체험은 깨달음이기에 체험적 감동은 깊은 여운과 이미지를 남긴다.

이러한 몰입과 깨달음을 위해 대개 관광객들은 관계와 일상성에서 벗어난 '새다르고 별난 것'을 느끼며 체험하고 싶어한다. 사실 인간은 감성이 충분히 개발되어야 사물을 보는 영감과 안목을 통해 옳고 그름을 정확히 가릴 수 있다. 감성개발을 위해 관광여행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소중한 수단이다.

그러기 위해서 관광개발은 두 가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겪는 관광이요, 하나는 느끼는 관광이다. 그리고 겪고 느끼는 둘이지만 하나인 것이다.

관광은 원래 주역에 나오는 말로 그 어원적 의미에서부터 현대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관광은 '觀國之光'의 약어이다. '觀'은 보긴 보되 자세히 살펴보고 음미(사색)한다는 뜻이며, '觀'의 대상인 '光'은 '國之光', 즉 나라의 빛을 말한다. 여기서 나라의 빛은 문화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문화는 관광의 본질이다. 경제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관광상품생산을 위한 결정적 인자이며, 또 역으로 관광은 문화와 산업을 이어줌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창작의 재원을 확보토록 해주며 발표의 기회를 활성화시켜 주기도 한다.

관광은 원래 관광지의 문화를 보는 것, 또는 보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이미 그 안에 문화관광을 함축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광객이 보는(보고 싶은) 것과 관광객에게 보여주는(보여주고 싶은) 것을 일치시키는 교차점에 관광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화관광의 사전적 의미는 '유적·유물·전통공예·예술 등이 보존되거나 스며있는 지역 또는 인간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관광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세계관광기구(WTO)는 1985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문화관광의 개념을 기술하고 있다. "문화관광은 --- 좁은 의미에서는 연구여행, 무대예술, 문화여행, 축제 및 문화적 행사, 역사적인 장소와 유적, 자연과 민속, 예술을 배우는 행위, 성지순례 등 본질적으로 문화적 동기에 의한 인간행위가 포함된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문화관광에는 인간의 움직임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움직임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그에 따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경험·만남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중간적 의미를 취해 사적, 유적, 역사적 구조물, 공예·박물관·미술

관 등의 시각예술, 그리고 무대예술을 보거나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문화관광이라 정의한다. 물론 사적과 역사적 건축물, 박물관, 미술관 등이 문화관광의 기본인 점은 분명하며 관광지의 향토문화나 민족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문화관광에 포함된다. 일찍이 Arthur Frommer가 말한 것처럼, “관광객은 혼을 빼앗긴 도시를 찾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의 혼은 역사적 유산과 장소를 파괴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히 상실될 수 있다.”

문화관광의 대상에는 역사적 건물이나 기념물 등 유적과 사적 및 사적지, 박물관·영화관·미술관·기념관 등 유형의 구조물은 물론이고 세시풍속, 민속, 음악, 무용, 종교, 문학, 언어, 생활양식 등 무형의 요소들까지 포함된다. 결국 문화관광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문화자원을 찾아 꿰는 작업이 과제이다. 단지 어떻게 과거가 현재의 문을 통해 미래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연출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요구될 뿐이다.

### 문화관광의 유형

문화관광의 유형	특 징	사 례
유적관광 (Heritage Tourism)	과거에 대한 향수와 다양한 문화적 환경을 경험하려는 욕구에 기반을 둔 유형과 무형의 유적을 소재로 한 관광	- 이집트의 피라미드 관광 - 유럽 박물관 순례 - 민속축제 참관
예술관광 (Arts Tourism)	미술, 조각, 연극, 기타 인간 표현과 노력의 창조적 형태를 경험하는 여행	- 파리 화랑순례 - 반 고흐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
교육여행 (Educational Travel)	특정분야에 대한 배움의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험을 위주로 한 여행	- 어학연수 여행 - 음악연수 여행
종족생활체험관광 (Ethnic Tourism)	살아있는 문화인 인간과의 실제적 접촉을 통해 이(異)민족의 생활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행	- 태국 고산족 여행탐방 - 보르네오 통나무집 거주민 탐방여행 - 자바 인형극마을 탐방여행

문화관광은 관광지 지역사회에 간과해서 안되는 의미를 갖는다. 관광객들이 ‘보고싶어하고 또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기대문화에 앞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실제문화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관광(sustainable community-based tourism)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발전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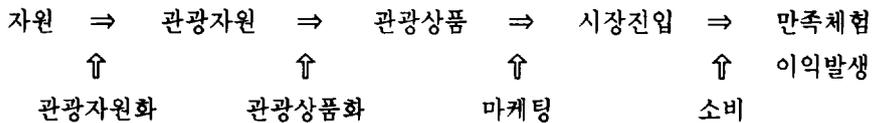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 2) 문화의 관광상품화

관광상품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는 상품으로서 기호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니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관광상품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관광객의 욕구에 대한 해결책이 되거나 마케팅 활동에 의해 창출된 환상에 응답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광상품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역사를 혼성곡으로, 지리를 걸모양으로, 환상을 고유성으로 그리고 감각적 체험을 상품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완벽한 형상인 디즈니 월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관광객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먹고, 냄새 맡으면서 그리고 피부로 느끼면서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만족을 추구한다.

### 〈관광상품화 모델〉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수 있는 자원이 관광자원이 되고 관광자원이 다시금 관광상품이 되고 관광상품이 시장에 진입하여 관광객을 만나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관광객은 만족을 체험하게 된다. 여기서 자원이 관광자원이 되게 하는 과정이 관광자원화이며 관광자원이 비로소 관광상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관광상품화인 것이다.

물론 관광객의 만족체험을 위해서는 시장에 관광상품이 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 관광상품이 생산되기까지는 시장진입에 대한 고려 즉, 마케팅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관광자원화는 자원에 숙박시설, 식음시설, 접근시설, 놀이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의 시설과 안내 및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성하고 꽃, 수목, 돌, 물 등을 이용한 조경처리 및 실내장식, 거리장식 등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원이 지니고 있는 관

광감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 즉, 관광자원개발을 가리킨다.

관광상품화는 관광자원에 관광객의 시간을 투입하여 생산되는 관광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 및 소비행위를 설계하고 여기에 적절한 가격을 결정하여 관광자원이 지닌 기호가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니게 하는 작업 즉, 관광상품개발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관광객의 이동(여행)이 전제로 된다.

문화의 관광상품화 과정에는 해설과 연출, 그리고 마케팅이 중요하다. 문화자원의 해설은 사실적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내재된 의미와 관련성을 자극을 통해 나타내 보임으로써, 인간과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제반현상에 대하여 보다 큰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자원해설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에 대하여 예리한 감상능력과 이해능력을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해,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열광, 그리고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자원을 해설할 때에는 자원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활용하여 그것에 얽힌 이야기를 해석·설명해 줌으로써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마음과 상상의 문을 열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프란스 같은 학자는 자원해설은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미적·지적 자극을 환기시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감성지향의 질적 만족시대에서는 관광객은 심금을 울리는 서비스를 선호하게 되고, 관광상품도 경제적 의미의 물성(物性)보다 감성을 중시하게 된다. 상품이 갖추어야 할 세가지 요소가 Pathos(정서: 이미지), Logos(논리: 가격), Ethos(신뢰: 신용)인데, 그 가운데 Pathos가 가장 강조되는 것이고 특히 관광상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감성에 호소하여 관광객이 탄성을 지르고 환상에 젖고 몰입됨으로써 관광객을 감격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게하기 위해서는 이를 연출하여 드라마화 할 필요가 있다. 연출기법의 활용은 관광객과 접객요원(관광지 주민 포함), 관광객과 환경 사이의 인간적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연출기법에 따라 제공되는 관광상품의 드라마(공연) 개념은 이러하다. 관객은 관광객이고 접객요원(관광지주민 포함)과 무대장치(물리적 환경이나 분위기), 그리고 의미와 인상의 관리라는 세요소가 결합되어 관광상품의 공연이 베풀어진다. 이 때 관광서비스에 협력하는 모두가 공연팀이 된다. 이 공연의 세가지 구성요소

는 잠재적으로 관광객에게 '상징적 의미'를 느끼게 하여 드라마를 감상하는 관광객의 환상과 몰입과 탄성을 자아낸다. 이렇게 볼 때 관광객은 효용 뿐만 아니라 상징을 추구하여 관광상품을 구입하는 셈이다.

마케팅화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서로서로 또는 다른 관광자원과 연결, 흡사 부품을 조립하듯이 관광상품화하고 다시 이를 시장에 진입시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킴으로써 역사문화를 관광산업화하는 일련의 시장전략을 통칭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적시장내 관광객 기대수준의 파악 → 기대수준에 부합되는 역사문화상품의 설계 → 관광객의 마음에 자리할 수 있는 포지셔닝 대안의 개발 → 마케팅 믹스 전략 등 일반적인 관광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디자인, 정보화 등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전력개발이 요청된다.

과거 '손발경제' 시대에는 손발이 부지런해야 했고 '두뇌경제' 시대에는 학식과 지식을 이용해야 성과가 나왔지만 '마음의 경제' 시대인 현대에는 문화와 예술을 이용해야 고객을 감동시키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고도의 감성산업이자 정서산업이다. 감성산업이란 눈을 만족시키고 입을 기쁘게 하며 몸에 자극을 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등 오감(五感)에 호소하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성공할 수 있다.

### Ⅲ. 제주해역 문화자원 활용 방안

#### 1) 제주해역 옛 문화자원 활용방안

##### (1) 능동적인 문화유산 발굴 및 정비

각 지역이 지니는 역사문화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생활경험을 통하여 터득한 삶의 지혜요, 기술이다. 그러한 문화 속에는 그 문화가 하나하나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

그러한 삶의 지혜와 방법을 밝혀내고 그것을 날로 메말라 가는 현대생활에 조화시켜 현대인들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통문화를 진흥시켜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긍심확대와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의 기틀

을 다지는 일, 그것은 곧 우리들이 이룩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sup>4)</sup>

제주지역 역사문화자원은 그 독특성으로 인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원형을 복구하거나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소극적인 원형보존에 그치지 말고 정비·해결·전시하여 문화의 상징성과 상품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는 많은 해양유적과 “1만8천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만큼 신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해양왕국을 주도했던 고대 탐라의 유적, 인류의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해녀문화, 신화마을공동체의 흔적인 본향당과 당굿, 이러한 유적들을 발굴하고 정비하여 제주의 문화적 자존을 세우고 제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그 진가를 시현해 줄 필요가 있다.

### (2) 무대화와 루트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

일반적으로 역사문화자원의 개발에는 관광객이 관광대상의 ‘고유성’을 추구하여 관광을 할수록 그 행위가 대상을 ‘상품화’하고 그 고유성을 상실시킨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도와 같이 역사문화의 단절을 경험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해 준비된 반복공연 형태를 통한 무대화와 지역민의 행사로서 고유성을 유지하고 전승되는 민속현장의 방문형태인 루트화를 통한 문화관광개발은 오히려 전통문화의 복원, 발굴, 전승 및 재창조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sup>5)</sup>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문화자원의 개발방향은 문화의 전승정도와 상황에 따라 무대화와 루트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 (3) 창조적 연출 및 해설 부가

제주해역의 문화유산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문혀 가는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역사교육장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상품으로서의 상품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래의 의미를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에서의 창조적 연출미가 필요하다. 즉, 역

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관광에 관한 기초연구』, 1989, p. 7.

5) 한상일, 전개논문, p. 156.

사적 사실을 발굴하고 이를 스토리화함으로써 쉽게 이해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세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2) 제주해역 현재 문화자원 활용 방안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에서는 문화와 경제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생존하여 왔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가 점차 중시되는 21세기인 현재 문화와 경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서로간에 보완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음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서로 협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인들은 경제에 의해 축적된 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화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심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경제인들은 그 심미성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여 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문화와 경제가 상호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sup>6)</sup>

문화와 경제의 이 같은 관련성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상품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문화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이 산업의 개념범주를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한 영화, 음반, 예술, 출판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문화산업은 특히 관광산업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 (1) 영상산업에 관광적 요소의 부여

히트영화의 촬영소가 그냥 영화촬영장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각 여행사가 영화나 드라마 제작장소를 관광상품화 해서 성공을 거둔 예는 이러한 활용방안의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영상테마파크의 경우 관광산업에 있어 고질적인 계절성의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에서도 많은 영화가 촬영되고 있지만 촬영이 끝난 후 실질적으로 관광산업과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주해역의 해양적 특성을 살려 상설적인 영

6) 전택수,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문화와 경제」, 『문화경제학만나기』, 김영사, 2001. pp. 490-491.

화촬영장소를 일종의 테마파크 형태로 개발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촬영된 제주의 촬영장소를 잘 보존하여 이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에서 촬영되어 성공한 주요 영화로는 '연풍연가', '쉬리', '시월애', '단적비 연수', '이재수의 난'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들 영화촬영장소를 갖추고 그 현장세트를 보존하여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관광상품화 전략으로서 관광객 및 문화소비층을 다양하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 (2) 문화·예술 건축시설의 관광자원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축제의 자리'가 요구된다. 축제나 영화제, 연극제 등을 통해 지역민이 즐기면서 동시에 관광효과를 유발하려 한다. 영화관 등의 공연시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등 지역민의 생활 속에 자리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공간마련, 문화와 위락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유인력 확보, 지역의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을 활성화시켜 장소성을 부여함으로써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 (3) 지역예술제의 축제 및 이벤트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각종 축제와 이벤트가 개발·운영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30여개의 축제가 연중 개최되고 있다.

특히 공연예술 축제는 제주지역 공연예술 전체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해 줄수 있게되고 이를 통해 관광진흥에도 기여하게 된다.

지역축제나 예술제가 그 동안은 관광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 머물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광을 매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 제주해역 미래 사회에서 해양문화의 활용 전망

문화가 경제발전에 지역경제발전에 활력을 주는 순환 관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균형 있는 사회구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화는 창조적인 이행기능과 함께 풍요로운 삶의 척도를 제시하는 '준거의 틀'로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문화·정보·지식이 사회를 주도해 가는 21세기에, 전통의 전승 및 학습, 문화관광 및 문화상품 판매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시키고 지역의 문화산업 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독특한 환경, 문화적 전통, 민속 등을 내세워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잘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의 관광지들의 사례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전통농촌으로 ‘잊혀진 지역’으로 머물러 있던 전라남도 강진이 한국 최대의 문화관광지(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의 경우만도 연 60만명 이상 방문)로 부상한 경우가 그러하다.

옛 류큐왕국의 역사복원, 전통 언어와 민속의 대대적 장려, 전쟁을 평화기원으로 승화하는 기념공원의 조성, 컨벤션과 휴양리조트 등 교류휴양지역의 개발, 서방선진 8개국 정상회담의 유치·개최로 이어지면 입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키나와의 ‘국제도시개발’이 그러하다.

제주지역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관광객의 시선(tourist's gaze)’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제주를 바라보는 ‘관광객의 시선’을 만들고 이 시선의 세계적 창출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이때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제주=섬(島)’이라는 기본개념이며 그것의 주요 콘텐츠가 ‘섬의 생태’와 ‘해양문화’이다.

최근에 흔히 쟁점이 되듯, 섬생태와 해양문화는 관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관광생산을 위한 기초적 원료로서, 관광객의 시선을 모을 수 있는 지역가치로서, 오히려 찾아 가꾸고 드러내야 할 가치이다. 경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제주의 고유한 ‘섬 생태와 문화’가 제주문화관광산업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주 문화산업의 소비자인 제주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겪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바다를 뒤로한 채 한라산을 정점으로 중산간 웅기종기 솟은 오름, 거기에서 오랜 세월 동안 관용하면서 일궈온 섬사람 특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설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해양문화 자원을 포함하는 제주 문화자원 활용방안이요 활용철학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양문화자원 개발은 지역주민의 이익극대화, 지역문화의 계승·전파, 해양환경보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 정문교, 『문화발전과 행정』, 민속원, 1999, p.12.

## IV. 마무리

제주도는 섬으로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253km의 아름다운 해안선과 해양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굿과 해녀, 덕판배와 테우 등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뉴스위크나 프랑스의 르몽드와 관련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도 제주를 일러 '신의 손길로 빛은 자연'·'신비로운 해양문화가 간직된 곳' 그래서, 가볼만한 관광지로 추천받을 정도이다.

제주는 해양문화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을 연결시키는 요충지로서 해양개발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의 해양문화 활용의 출발점으로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공동체의 지도와 통제를 받으며 자연의 환경용량 내에서 해양문화를 포함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해역의 문화자원 활용은 다음과 같은 공간구조 모델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은 제주라는 공간의 문화 및 역사Complex와 Complex간의 Landmark를 발견·조성하여 문화환경간의 루트를 연결시키고 상호공간간의 연쇄고리를 만들어 문화향수를 지닌 시민과 관광객을 문화환경공간으로 유도해내고 문화관광산업 관련 시설을 접목함으로써 특성적인 문화 및 관광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거시적 예상지도 그리기'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역사문화 Complex의 확인과 잠재적 Complex의 요소를 발견해내야 하며 공간적 문화루트를 발견하고 그것이 확장·발전가능인가에 대한 현실적·잠재적 가능성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역사문화 관광루트는 단순한 설정만으로는 의미가 없으며 루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제반시설 및 환경투자(재개발 포함)가 단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문화적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 해역 문화자원 활용방안

